

#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부산시내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with parents of vocational girls'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roblem behaviors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석사 정유미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김득성

Dept. of Home Economic Education, Graduate Schoo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

*Graduate student* : Yoo-mi Jeong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 Deuk-sung Kim

## ◀ 목 차 ▶

I. 연구의 필요성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with parents of vocational girls'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roblem behaviors, to find out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m.

Data were collected by the second grade 389 students of vocational girls' high school students in Pusan.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Problem behavior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 of problem behaviors and behavior frequencies.
2. Problem behaviors were influenced positively by the delinquency of friends and negatively by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the successful school life. Communication with parents was influenced positively by the harmonious family atmosphere and the successful school life, negatively by stepparent family.
3. Runaway was influenced negatively by the harmonious family atmosphere and positively by the delinquency of friends. Gang fight was influenced negatively by the successful school life and positively

by the delinquency of friends. Sex affairs was influenced positively by the delinquency of friends. Suicide trial was influenced negatively by the harmonious family atmosphere and the delinquency of friends, positively by stepparent family and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Gang fight was influenced by school environmental factors and suicide trial was influenced by family environmental factors.

## I.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욕구와 부모의 권위와 간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갈등적 시기이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청소년은 사회에서 기대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문제행동을 하기도 한다.

청소년 문제행동은 양적인 증가 뿐아니라 질적으로 집단화, 조직화, 흉악화, 폭력화, 연소화, 여자 소년범의 증가, 학생 범죄의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청소년백서,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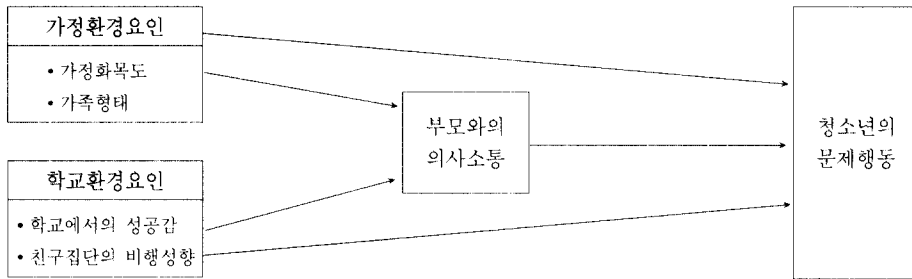
비행 학생수는 부산이 전국의 24%로 이는 서울 지역의 3배, 전국 평균의 배에 달한다.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1995년의 비행학생은 1994년에 비해 20%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남학생은 6% 증가한 반면 여학생은 49% 증가하였고, 비행학생 중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1994년 30%에서 1995년에는 37%로 증가하였으며,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실업계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이 더 많았다. 특히 여학생의 가출은 해마다 증가하여 1995년에는 남학생의 배에 달하였고, 폭행, 성경험, 자살기도 등의 심각한 문제행동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부산일보, 1995년 10월 3일: 중앙일보, 1996년 10월 20일: 안창규·분선화·전윤식, 1995).

이상과 같이 비행학생의 발생율은 타지역보다 부산에서, 인문계보다 실업계 고교생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문제행동으로 징계처벌을 받은 여학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소년원생이나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적으므로 부산시내 실업계 여고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일차적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는 가정환경적 요인이다(정명희, 1988; 정기숙, 1993). 가정환경요인 중 물리적 환경요인인 가족형태(최재석, 1985), 심리적 환경요인인 가정화목도(최유진, 1993; 김선애, 1994)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가정환경과 더불어 학교환경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청소년들은 바람직하게 사회화되지 못하여 문제행동을 하게 된다.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업성적(김규훈, 1988; 김인자, 1991), 친구집단의 비행성향(박인수, 1984; 유혜경, 1986)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학교환경요인이다.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장호선, 1986)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경화, 1989; 민하영, 1991; 김주분, 1994; 신의정, 199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가족형태(이경주, 1989), 가정화목도(이정우·김규원, 1989; 최선남, 1990)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의사소통을 매개로 한 문제행동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졌으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인과모형으로 설명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요인 중 가정화목도와 가족형태, 학교환경요인 중 학교에서의 성공감과 친구집단의 비행성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매개변인,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각 변인들이 문제행동에 어떤 경로를 거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탐색적 목적에서 최근에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심각한 문제행동 중 가출, 패싸움·폭행, 성경험 및 자살기도의 경험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고자



<그림 1> 연구모형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 의사소통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2] 청소년 문제행동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3]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직접·간접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4] 청소년의 가출, 패싸움·폭행, 성경험 및 자살기도 경험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 II. 이론적 배경

### 1. 문제행동

#### 1) 문제행동의 개념 및 유형

문제행동이란 대다수에 의해 기대되거나 인정되는 행동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며(Ebel, 1969) 구체적으로 지배적인 사회집단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 행동, 특히 개인이나 집단에게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손상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동을 의미한다(Good, 1973). 문제행동은 반사회적 행동은 물론 비사회적 행동까지 포함하는 넓은 뜻으로 사용되며, 청소년

비행 또는 청소년 범죄로 불리는 반사회적 행동도 모두 문제행동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김규훈, 1988).

따라서 문제행동이란 어떤 개인이 가정, 학교 및 기타 장면에서나 사회생활에서 행하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문제행동은 학생신분으로서 하면 안되지만 경험자가 상당히 많은 가벼운 문제행동(개인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비교적 적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률적 위반행위까지 포함되는 심각한 문제행동(개인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줌)까지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의 유형을 유혜경(1986)은 범법 비행과 신분비행으로, 민하영(1991)은 대인비행, 대물비행, 약물사용비행 및 지위비행으로, 한승희(1992)는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 및 지위비행으로, 민병근(1978)은 문제행동의 경중에 따라 잠재적 문제행동, 중정도 문제행동 및 비행행동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부여한 윤성은(1986)과 민하영(1991) 연구를 참조하고, 예비조사를 통하여 가벼운 문제행동, 중정도 문제행동 및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분류하였다.

#### 2)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행위자가 처해 있는 환경인 환경적 요인과 행위자의 특성인 개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연구(나철, 1992; 최윤진, 1993; 정기숙, 1993)는 청소년 문제행동이 청소년 개인의 문제라 아니라 부모의 부부관계 문제와 가족체계의 문제 등 총체적 가족의 문제로 보며, 청소년 의식조사 연구(1994)에서도 실업계 고교생들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주원인을 가정문제로 꼽아 가정환경요인이 강조되고 있다.

가정의 구조적 환경과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대부분 선행연구 결과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장선경·김주희, 1989),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Ramsey, 1988; 김인자, 1991; 이정아, 1995), 취업모의 자녀일수록(김화식, 1985; 김주분, 1994), 결혼가정 출신일수록(김규훈, 1988; 최응렬, 1985) 문제행동 발생률이 높았으며, 특히 계모가 있는 여학생의 경우 문제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김인자, 1991), 경제적 빈곤으로 자녀의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요구가 적절하게 충족되지 못할 때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일어날 수 있지만, 빈곤가정 출신의 청소년이 부유한 가정 출신의 청소년보다 문제행동이나 비행으로 구속되어 판결받을 기회가 높기 때문에 경제적 빈곤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주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중에서 가정화목도가 남학생의 문제행동과 상관성이 있지만 여학생과는 무관하다는 연구가 있으나(김인자, 1991), 대부분 연구들(김규훈, 1988; 김준호, 1990; 김윤희, 1989; 최윤진, 1993; 김선애, 1994)은 부부간의 불화가 잦고 가정내 갈등과 충돌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많다고 일관성있게 보고하였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학습을 통하여 정서적 만족을 얻고 사회적으로 용인된 이상을 가지며 점차 사회생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런데 학교 환경이 청소년의 발달에 지장을 주게 되면 이것이 반사회적 태도 형성을 자극하고 범죄를 범하며 비행화의 수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게 된다.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휴먼하는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청소년은 문제행동을 많이 하며(고정자·김갑숙, 199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에 만족하

며 학교에서 보다 성공적인 청소년일수록 비행친구를 가질 확률이 낮으며(조정문, 1985; 차규길, 1986; 김규훈, 1988; 김인자, 1991), 교우관계가 건전하며 친구집단의 비행성향이 낮을수록(박인수, 1984; 유헌경, 1986)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적었다.

## 2.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

의사소통은 인간의 감정, 느낌, 태도, 생각 등의 메시지를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통하여 상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받는 매개체로서 대인관계의 순환적인 과정 및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과정으로 인간사회에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효율적인 인간상호간의 접촉을 유지시킴으로써 가정에서는 가족원들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성인사회에서는 서로의 정보교환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자녀의 사회화와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중 Barnes와 Olson(1985)의 척도를 이용한 김오남(1994), 박은주·김경신(1995)연구에서 청소년은 어머니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였고, 민하영(1991)연구에서 비행청소년들의 절반이상이 아버지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김인경(1993), 정명희(1988)연구에서 고교생들은 아버지와 주로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개방적으로 하였다. 이정우·김규원(1989), 최선남(1990)연구에서 가정분위기가 화목하고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개방적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였다.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정서 교육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고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생성하며 이로 인한 욕구불만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 다른 여러가지 제반환경과 결합하여 문제행동을 촉진시키며 최악의 경우 자녀의 정신질환을 초래하기도 한다(정명희, 1988).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 연구에서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지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 발생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정명희, 1988: 김경화, 1989: 민하영, 1991)가 있는 반면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에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연구(Noller과 Bagi, 1985: 오연옥, 1988: 김인경, 1993: 김주분, 1994)도 있었다. 부모 어느 한 쪽과의 의사소통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더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자녀가 자신의 생각이나 고민을 부모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문제행동을 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부모 모두의 영향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 6개 교육청 중에서 사회경제적,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4개의 교육청을 선정하여 그 산하에 있는 실업계 여자 고등학교를 1개교씩 표집하였는데, 문제행동 실태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학교 성적이 '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학교 1개교, '중'에 해당하는 학교 2개교와 '하'에 속하는 학교 1개교를 포함하도록 하였다<sup>1)</sup>. 본 연구는 부산시내 실업계 여자 고등학교 4개교에서 2학년 2학년씩 총 4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부실기재된 11부를 제외한 389부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친부모 비율은 89%로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낮고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높았으며<sup>2)</sup>, 조사대상자의 부모 교육수준, 직업 및 생활수준을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교적 낮은 계층이 표집되었다.

#### 2. 측정도구

##### 1) 가정화목도 척도

가정화목도 척도는 Kinnaird와 Gerrard(1986)의 가정분위기 척도(Family Atmosphere Questionnaire)를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89

특 성	빈도	%
<b>출생순위</b>		
첫째	150	38.6
중간	98	25.2
막내	125	32.1
외동	15	3.9
무응답	1	.3
<b>종교</b>		
무교	150	38.8
기독교	83	21.3
천주교	23	5.9
불교	126	32.4
기타	7	1.5
<b>아버지 연령</b>		
30대	9	2.5
40대	250	68.8
50대	95	26.2
60대	9	2.5
무응답	26	6.7
	평균 47.4	편차 5.3
<b>어머니 연령</b>		
30대	55	14.6
40대	296	78.3
50대	27	7.1
무응답	11	2.8
	평균 43.1	편차 4.2
<b>생활수준</b>		
하	1	.3
중하	59	15.2
중	251	64.5
중상	76	19.5
상	1	.3
무응답	1	.3
<b>가족형태</b>		
친부모	347	89.2
친부, 계모	4	1.0
친모, 계부	5	1.3
계부, 계모	1	.3
편부	5	1.3
편모	23	5.9
무부모	2	.5
무응답	2	.5

- 1) 부산시내 인문계 고교는 평준화 되어있지만 실업계 고교는 중학교 내신성적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형식임.
- 2) 고교생을 조사대상으로 한 김규훈(1991)의 연구에서 친부모 비율은 97%였고, 소년원생을 조사대상으로 한 장선경·김주희(1989)의 연구에서 친부모 비율은 59%였다. 김윤희(1989)연구에서 친부모 비율은 고교생인 일반청소년이 100%, 소년원생인 비행청소년이 86%였다.

특 성	빈도	%
<b>아버지 교육수준</b>		
초졸	36	9.3
중졸	95	24.4
고졸	197	51.2
전문대졸	8	2.1
대졸이상	28	7.2
무응답	25	5.9
<b>어머니 교육수준</b>		
초졸	81	20.8
중졸	134	34.4
고졸	151	38.8
전문대졸	5	1.3
대졸이상	10	2.6
무응답	8	2.1
<b>아버지 직업</b>		
무직	8	2.1
임시, 단순직	20	5.1
서비스직	22	5.7
기능직, 생산직	131	33.7
소규모 자영업	81	20.8
사무직	36	9.3
전문기술직	31	8.0
고위전문직	7	1.8
기타	25	6.4
무응답	28	7.2
<b>어머니 직업</b>		
무직	185	47.6
임시, 단순직	27	6.9
서비스직	28	7.2
기능직, 생산직	59	15.2
소규모 자영업	64	16.5
사무직	6	1.5
전문기술직	3	.8
기타	10	2.6
무응답	7	1.8

참고하였으며,父와 母의 관계,父와 나의 관계,母와 나의 관계,가족의 일체감,가족 내의 의견충돌이나 갈등,가족의 화목 정도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화목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며, 신뢰도 계수  $\alpha = .81$ 이었다.

## 2) 학교에서의 성공감 척도

학교에서의 성공감 척도는 현재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정도와 응답자 스스로 평가하는 학업 성적의 정도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만족하며 학업 성적이 높아 성공적임을 나타내며, 신뢰도 계수  $\alpha = .57$ 이었다.

## 3) 친구집단의 비행성향 척도

친구집단의 비행성향 척도는 화장,파마·염색과 같은 가벼운 것에서 가출,퇴학과 같은 심각한 것까지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범주는 가까운 친구들 중에서 문제행동을 경험해 본 친구가 '없다'는 0점, '1명'은 1점, '2~3명'은 2점, '4~5명'은 3점, '6명이상'은 4점을 부여하였다<sup>3)</sup>.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집단의 비행성향이 높은 것을 나타내며, 신뢰도 계수  $\alpha = .92$ 이었다.

## 4)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 중 청소년 자녀용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父와의 의사소통 20문항과 母와의 의사소통 20문항으로 구성되며, 각각 개방적 의사소통 유형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2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늘 그러는 편이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개방적 의사소통문항은 그대로 점수화하고, 역기능적 의사소통문항은 반대로 점수를 부여하여 합하였다. 즉 부모와의 의사소통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와 부모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며, 신뢰도 계수  $\alpha = .95$ 이었다.

## 5) 문제행동 척도

문제행동 척도는 실업계 여고 현직교사 5명의 도움을 받아 여학생의 문제행동 특성에 적합하도록 30문항으로 제작되었으며, 예비조사를 통하여 문제

3) 친구수는 백경임·서동인(1993)연구를 참조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남녀 중·고교생들의 친한 친구의 수는 2~3명 32.5%, 4~5명 29.7%, 6명이상 23.6% 순이었고, 여중생의 친한 친구의 평균 수는 6.5명, 여고생의 친한 친구의 평균 수는 13.8명으로 여학생들의 친한 친구는 대략 7명이상임을 알 수 있다.

<표 2> 문제행동 점수화

		일시적 정도		중간 정도		상습적 정도	
		경험횟수	점수화	경험횟수	점수화	경험횟수	점수화
가벼운 문제행동 (7문항)	파마·염색	1-3회	1	4회-2달에 1번미만	2	2달에 1번이상	3
	화장, 욕설, 음주, 음란물 관람 부모·교사에게반항, 유흥업소 출입	1-5회		6회-1주에 1번 미만		1주에 1번이상	
중정도 문제행동 (10문항)	커피, 폭주족, 무단결석·조퇴 근신·경고처분, 도박, 외박	1-3회	2	4회-1달에 1번미만	3	1달에 1번이상	4
	흡연*	1-3회		4회-1주에 1번미만		1주에 1번이상	
	혼성캠핑, 가출, 등록금 남용	1-2회		3회-7회		8회이상	
심각한 문제행동 (10문항)	절도, 파출소 연행, 집 불건훔쳐팔기 폭력싸움 가입, 패싸움·폭행, 협박 성경험, 자살기도	1-2회	3	3-7회	4	8회이상	5
	임신, 환각제 사용	1회		2-4회		5회이상	

\* 연구대상이 남녀고교생인 유혜경 연구(1986), 남자 고교생인 윤성은 연구(1986), 남자 비행청소년인 민하영 연구(1991)에서 '흡연'은 가벼운 문제행동에 해당되었으나, 본 연구의 예비조사 결과 실업계 여고생과 교사는 '흡연'을 중정도 문제행동으로 지각하였다.

행동의 경중에 따라 가벼운 문제행동, 중정도 문제행동, 심각한 문제행동의 세 유형<sup>1)</sup>으로 분류하였다. 응답은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응답자가 중·고등학교 시기에 각 문제행동을 경험한 횟수를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경험횟수는 최민치를 기준으로 일시적 정도, 중간 정도, 상습적 정도로 나누어 점수화하였다. 문제행동 경험정도의 분류기준과 점수화는 <표 2>과 같다. 본 조사에서는 문제행동 중 경험자가 1명 이하이면서, 문항분석 결과  $r = .06$  이하인 세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27문항으로 구성된 문제행동 척도의 신뢰도 계수  $\alpha = .91$ 이었다.

### 3. 자료수집

예비조사는 1996년 6월 24일에 부산시내 실업계 여고 2학년 92명과 실업계 여고 현직교사 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본 조사는 7월 8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PC<sup>+</sup>와 SAS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하여 백분율, 빈도, t검증,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상관분석, 일원변량분석, 회귀분석, 경로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 1) 문제행동을 가벼운 문제행동, 중정도 문제행동, 심각한 문제행동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각 문항에 대해 당연히 할수도 있다(1점)에서 절대로 하면 안된다(7점)까지 7점 척도로 각각 표기하도록 하였다. 각 문제행동의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심각한 정도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가벼운 문제행동'이란 학생 신분으로서 하면 안되지만 경험자가 상당히 많은 행동으로 개인적, 사회적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문제행동이고, '심각한 문제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서 법률적 위반 행위까지 포함하는 행동으로 개인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문제행동이며, '중정도 문제행동'은 가벼운 문제행동과 심각한 문제행동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행동이다.

## IV. 결과 및 해석

### 1.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 의사소통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의 조사결과 실업계 여고생들은 자신의 문제를 주로 의논하는 상대가 여자 친구 55%, 부모님 17%, 형제자매 15% 순이었으며, 의논상대 없이 혼자 해결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8%였다. 청소년 자녀는 친구와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눈다는 김오남(1994)의 연구와 같이 선생님이나 부모님보다는 가까운 친구들과 자신의 문제를 의논하며, 의논할 상대가 없이 혼자서 고민하는 학생들도 의외로 많았다.

〈표 3〉에서 남자친구와 주로 의논하는 집단의 문제행동이 가장 많았으며 선생님과 주로 의논하는 집단의 문제행동이 가장 적었다( $F=2.61$ ,  $p<.05$ ). 추후 검증결과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주로 의논하는 집단의 문제행동이 적었으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주로 의논하는 집단의 문제행동이 많았다.

실업계 여고생들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父와의 의사소통 20분항과母와의 의사소통 20분항의 각각 평균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父와의 의사소통은 평균 59점,母와의 의사소통은 평균 66점으로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p<.0001$ ( $t=-10.88$ )수준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즉 실업계 여고생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의사소통 평균점수는 Olson(1985)연구의父와의 의사소통 점수(63.7점)보다 낮고母와의 의사소통

〈표 3〉 의논상대에 따른 문제행동의 일원변량분석  $N=387$

의논 상대	N(%)	평균	F	Scheffé
선생님	12( 3.1)	128.0	2.61*	a
부모님	64(16.5)	260.6		a
형제자매	57(14.7)	276.3		b
여자친구	212(54.8)	701.6		b
남자친구	13( 3.4)	906.9		b
혼자 해결	29( 7.5)	410.2		

\* $p<.05$

〈표 4〉父와의 의사소통과母와의 의사소통의 차이검증

	평균	표준편차	범위	t
父와의 의사소통	59.17	15.67	24~95	-10.88*
母와의 의사소통	65.91	14.36	27~98	

\* $p<.0001$

점수(66.6점)와 비슷하며, 김인경(1993)연구의父와의 의사소통 점수(59.2점)와 거의 같고母와의 의사소통 점수(70.9점)보다 낮았고, 조은경·서병숙(1994)연구의父와의 의사소통 점수(59.7점)와母와의 의사소통 점수(67.7점)와는 비슷하였다<sup>5)</sup>.

### 2. 청소년 문제행동의 전반적 경향

#### 1) 청소년의 문제행동 경향

실업계 여고생들의 문제행동 경향은 〈표 5〉과 같다.

문제행동은 유형별로 보면 가벼운 문제행동의 경험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정도 문제행동, 심각한 문제행동의 순으로 경험자가 적었으며, 경험정도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일시적 정도의 경험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간 정도, 상습적 정도의 순으로 경험자가 적었다. 그러나 문제행동 중 욕설은 일시적 정도와 상습적 정도의 경험 비율이 비슷하였고, 유흥업소 출입, 무단조퇴·결석, 패싸움·폭행은 일시적 정도보다 중간 정도의 경험비율이 높았으며, 흡연은 일시적 정도나 중간 정도보다 상습적 정도의 경험비율이 높았고, 성경험은 일시적 정도보다 상습적 경험정도가 훨씬 많았다.

흡연은 전체의 24%가 경험하였고 경험자의 43%가 상습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는 선행연구<sup>6)</sup>

5) 김인경(1993), 조은경·서병숙(1994)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서 대학생까지의 조사대상을 포함하였는데, 여기서는 본 연구와 같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점수만을 인용하였다. 김인경 연구에서는 개방적 의사소통점수와 의기등적 의사소통점수를 각각 기록하였는데 여기서는 본 연구의 의사소통점수 산출 방법과 감도록 역기능적 의사소통 점수를 환산하여 개방적 의사소통 점수와 환산하여 기록하였다.



<표 5>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전반적 경험

N(%)

	문제행동	무경험	경험 정도		
			일시적 정도	중간 정도	상습적 정도
가벼운 문제 행동	음주	75(19.3)	156(40.1)	126(32.4)	32( 8.2)
	화장	170(43.7)	92(23.7)	65(16.7)	62(15.9)
	유흥업소 출입	181(46.5)	88(22.6)	89(22.9)	31( 8.3)
	음란물 관람	191(49.1)	119(30.6)	70(18.0)	9( 2.0)
	파마·염색	217(55.8)	101(26.0)	50(12.9)	21( 5.4)
	욕설	248(63.8)	55(14.1)	32( 8.2)	54(13.9)
	부모, 교사에게 반항	251(64.5)	91(23.4)	32( 8.2)	15( 3.9)
중정도 문제 행동	컨닝	290(74.6)	78(20.1)	16( 4.1)	5( 1.3)
	흡연	295(75.8)	29( 7.5)	24( 6.2)	41(10.5)
	외박	320(82.3)	33( 8.5)	22( 5.7)	14( 3.6)
	도박	321(82.5)	34( 8.7)	19( 4.9)	15( 3.9)
	가출	360(92.5)	15( 3.9)	8( 2.1)	6( 1.5)
	폭주족	340(87.4)	22( 5.7)	20( 5.1)	7( 1.8)
	혼성캠핑	353(90.7)	23( 5.9)	7( 1.8)	6( 1.5)
	무단조퇴·결석	357(91.8)	12( 3.1)	15( 3.9)	5( 1.3)
	등록금 납용	372(95.6)	10( 2.6)	4( 1.0)	3( 0.8)
	근신·경고처분	373(95.9)	12( 3.1)	1( 0.3)	3( 0.8)
심각한 문제 행동	절도	347(89.2)	17( 4.4)	11( 2.8)	14( 3.6)
	자살기도	348(89.5)	30( 7.7)	5( 1.3)	6( 1.5)
	파출소 연행	365(93.8)	11( 2.8)	9( 2.3)	4( 1.0)
	패싸움·폭행	367(94.3)	7( 1.8)	13( 3.3)	2( 0.5)
	성경험	368(94.6)	3( 0.8)	6( 1.5)	12( 3.1)
	협박	379(97.4)	4( 1.0)	1( 0.3)	5( 1.3)
	집의 물건 훔쳐팔기	382(98.2)	4( 1.0)	1( 0.3)	2( 0.5)
	환각제 사용	384(98.7)	2( 0.5)	2( 0.5)	1( 0.3)
	입신	386(99.2)	3( 0.8)	.	.
	폭력써클 가입	387(99.5)	2( 0.5)	.	.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음주, 음란도서 및 비디오 관람, 유흥업소 출입을 해 본 학생의 수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여학생의 50%가 술을 마신다는 조사(부산 YMCA 실시: 한국교육신문, 1995, 10월 18일자)와 여학생의 45%가 음란물을 보았다는 조사(청소년 의식조사 연구, 1994)보다 높은 경험률을 보이며, 고교생의 75.5%가 음란비디오를 보았으며 13~25% 학생들이 상습적으로 즐기는 것으로 드러난 조사(한국 교육신문, 1996, 1월 17일자)보다는 낮게 나왔다.

중고생들의 가출현황 조사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가출이 많다는 연구(YMCA, 1991: 청소년 의식조사 연구, 1994)가 있는 반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가출이 더 많다는 연구(교육부·부산일보 1995년

10월 3일자: 중앙일보 1996년 10월 20일자)가 있어 성에 따른 가출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인문계 고교생보다 실업계 고교생의 가출이 많다는 견해는 일치하고 있었다. 본 조사의 가출 경험률은 8%로 선행연구<sup>7)</sup> 보다 약간 높았다.

자살을 기도했던 학생이 전체의 11%였는데, 이는 자살행동 연구(1993)에서 자살을 위한 준비 및 시도

6) 부산 YMCA(1995)조사에서 여학생의 15%가 흡연을 하였고 체육청소년부(1992)의 청소년 유해환경개선대책에 관한 연구에서 여학생의 3.7%가 흡연을 경험하였으며 1.7%는 지금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7) 안경달(1991)연구에서 부산 K여상의 5.8%, 안창규·문선화·전윤식(1995)연구에서 S여상의 5.8%, 이영희(1992)연구에서 가출단속위원의 7.4%, 형사정책 연구원

〈표 6〉 친구집단의 비행성향

	N(%)				
	없다	1명	2-3명	4-5명	6명이상
화장	51(13.1)	43(11.1)	93(23.9)	44(11.3)	157(40.4)
파마·염색	55(14.1)	58(14.9)	117(30.1)	51(13.1)	107(27.5)
육실	103(26.5)	61(15.7)	106(27.2)	36( 9.3)	81(20.8)
음란물 관람	118(30.3)	37( 9.5)	108(27.8)	38( 9.8)	88(22.7)
음주	21( 5.4)	24( 6.2)	76(19.5)	45(11.6)	223(57.4)
흡연	160(41.1)	39(10.0)	68(17.5)	45(11.6)	77(19.8)
성경험	239(61.4)	40(10.3)	57(14.7)	22( 5.7)	31( 8.0)
가출	215(55.3)	44(11.3)	75(19.3)	28( 7.2)	23( 5.9)
근신·경고 처분	252(64.8)	52(13.4)	58(14.9)	17( 4.4)	10( 2.6)
퇴학	291(74.8)	37( 9.5)	46(11.8)	9( 2.3)	4( 1.0)

를 한 여고생이 11.6%였던 것과 비슷하였다.

## 2) 친구집단의 비행성향

실업계 여고생들의 친한 친구들 중에서 문제행동을 경험해 본 친구 수는 〈표 6〉과 같다. 즉 퇴학, 근신·경고처분, 성경험이나 가출을 경험한 친구들은 많지 않았으나 파마·염색, 화장, 음주 등 가벼운 문제행동을 경험한 친구는 많았으며 이는 청소년 자신들의 문제행동 경향과 비슷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생으로서 하면 안되는 일인줄 알면서도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하여 문제행동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31%, '한두 번 있었다'는 39%, '가끔 있었다'는 24%, '자주 있었다'는 6%로 청소년에게 미치는 친구 집단의 영향력이 컸었다.

## 3.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계수는 〈표 7〉에 나타나있으며 독립변인들간의 다공선성은 없었다.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화목도, 가족형태<sup>8)</sup>, 학교에서의 성공감, 친구집단의 비행성향을 독립변인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매개변인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8〉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구집단의 비행성향( $\beta=5.9$ )이고, 다음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 $\beta=-.15$ ), 학교에서의 성

〈표 7〉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가정화목도	가족형태	학교에서의 성공감	친구집단의 비행성향
가정화목도	-			
가족형태	-.06	-		
학교에서의 성공감	.25**	.05	-	
친구집단의 비행성향	-.20**	-.04	-.33**	-

\* $p < .01$  \*\* $p < .001$

공감( $\beta=-.13$ )순이었다. 가정화목도, 가족형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문제행동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47%였다. 즉 실업계 여고생들은 친구집단의 비행성향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수록 학교생활이 성공적이지 못할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화목도( $\beta=.72$ ), 계부모 가족( $\beta=-.14$ ), 학교

(1983) 보고에서 일반학생의 7.1%, 청소년 의식조사 연구(1994)에서 여학생의 7.1%가 가출을 경험했다고 나타났다.

8) 가족형태는 선행연구에서 부모와의 동거상태에 따라 주로 정상가족과 결손가족으로 분류하였으나(김희식, 1985; 김규훈, 1988), 본 연구에서는 친부모 가족, 계부모 가족(친부+계모, 계부+친모, 계부+계모), 편부모 가족(편부, 편모)으로 세분화하였다. 가족형태는 가변수(dummy variabl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생략변주는 친부모 가족이었다.

〈표 8〉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중회귀분석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beta$	R <sup>2</sup>
청소년의 문제행동	친구집단의 비행성향	.66	.59**	.47**
	학교에서의 성공감	-1.15	-.13*	
	부모와의 의사소통	-1.04	-.15*	
부모와의 의사소통	가정화목도	4.95	.72**	.60**
	가족형태(계부모 가족)	-22.70	-.14**	
	학교에서의 성공감	2.04	.10*	

\*p<.01 \*\*p<.0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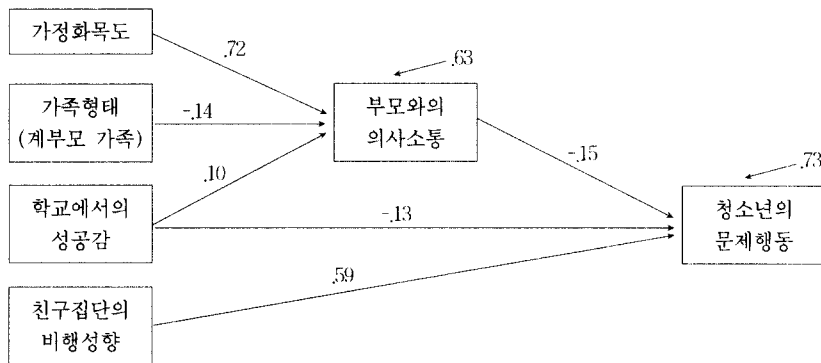
에서의 성공감( $\beta=.10$ )이었다. 친구집단의 비행성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부모와의 의사소통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60%였다. 즉 실업계 여고생들은 가정이 화목할수록 학교생활이 성공적일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하였고, 계부모 가족형태일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역기능적으로 하였다.

문제행동에 대한 각 변인의 영향력을 비교한 것이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친구집단의 비행성향(.59)이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15)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에서의 성공감은 직접효과(-.13)와 간접효과(-.02)를 동시에 미쳤다. 가정화목도(-.11)와 계부모 가족(.02)은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문제행동에 대한

〈표 9〉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의 인과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인과효과
가정화목도	-	-.11	-.11
가족형태(계부모 가족)	-	.02	.02
학교에서의 성공감	-.13	-.02	-.15
친구집단의 비행성향	.59	-	.59
부모와의 의사소통	-.15	-	-.15

총 인과효과는 친구집단의 비행성향(.59)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15), 학교에서의 성공감(-.15), 가정화목도(-.11), 계부모 가족(.02) 순이었다. 즉 실업계 여고생들은 친구집단의 비행성향이 높을수록 부모와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을 할수록 학교에서 성공적이지 못할수록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수록 계부모 가족일 경우 문제행동을 많이 하



〈그림 2〉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경로분석

였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경로분석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 4. 가출, 패싸움·폭행, 성경험 및 자살기도 경험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최근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증가추세에 있는 가출, 패싸움·폭행, 성경험 및 자살기도 네 가지 문제행동의 경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다른 변인들의 영향이 통제된 상태에서 각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각 문제행동의 경험유무를 종속변인(有=0, 無=1)으로 하고 가정화목도, 가족형태, 학교에서의 성공감, 친구집단의 비행성향,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설명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 중 가족형태는 가변인으로 처리하였고 친부모를 생략범주로 하였다. 각 문제행동에 영향력이 있었던 변인만 설명변인으로 택하여 다시 분석한 것이 <표 10>에 제시되어 있

다.

가출 경험유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화목도( $\beta = -.17$ )이고, 다음으로 친구집단의 비행성향( $\beta = .10$ )이었다. 이 변인들은 다른 변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p < .01$ 수준에서 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는 자유도 3에서 우도비 검정통계량이  $G^2 = 135.15$ 로 매우 의미있었다. 즉 가정화목도가 낮을수록, 친구집단의 비행성향이 높을수록 가출경험률이 높았다. 이는 실업계 고교생들이 지각한 가출의 주원인이 가정환경에 있다는 선행연구(안창규, 1995: 청소년의식조사 연구, 1994)를 지지하고 있으나, 친구집단의 비행성향도 주목할만한 것으로 보인다.

패싸움·폭행 경험유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교에서의 성공감( $\beta = -.67$ )이고, 다음으로 친구집단의 비행성향( $\beta = .09$ )이었다. 이 변인들은 다른 변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p < .05$ 수준에서 패싸움·폭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는 자유도 4에서 우도비 검정통계량

<표 10> 가출, 패싸움·폭행, 성경험 및 자살기도 경험유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종속변인	설명변인	B	$\beta$	SE	$G^2$	
가출	가정화목도	-.12	-.17**	.06	135.15	
	친구집단의 비행성향	.07	.10***	.03		
	부모와의 의사소통	-.01	-.01	.01		
패싸움 · 폭행	가정화목도	-.02	-.01	.10	101.15	
	학교에서의 성공감	-.43	-.67*	.21		
	친구집단의 비행성향	.13	.09***	.04		
성경험	가정화목도	-.08	-.09	.09	101.96	
	학교에서의 성공감	-.19	-.23	.22		
	친구집단의 비행성향	.13	.10***	.04		
자살 기도	가정화목도	-.15	-.15*	.07	183.37	
	가족형태	계부모 가족	2.60	.55***		.46
		편부모 가족	2.75	.42		.21
	친구집단의 비행성향	.06	.06***	.02		
부모와의 의사소통	-.03	-.02**	.01			

\* $p < .05$  \*\* $p < .01$  \*\*\* $p < .001$

이  $G^2=101.15$ 로 의미있었다. 즉 학교에서 성공감이 낮을수록, 친구집단의 비행성향이 높을수록 패싸움·폭행 경험률이 높았다. 패싸움·폭행에는 학교 환경요인이 큰 영향을 미침을 나타낸다.

성경험 유무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친구집단의 비행성향( $\beta=.10$ )으로 다른 변인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는 자유도 4에서 우도비 검정 통계량이  $G^2=101.96$ 로 의미있었다. 즉 친구집단의 비행성향이 높을수록 성경험률이 높아졌다.

자살기도 경험유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가족형태(계부모 가족  $\beta=.55$ )이고, 다음으로 가정화목도( $\beta=-.15$ ), 친구집단의 비행성향( $\beta=.06$ ), 부모와의 의사소통( $\beta=-.02$ )순이었다. 이 변인들은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p<.01$ 수준에서 자살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는 자유도 4에서 우도비 검정통계량이  $G^2=183.37$ 로 매우 의미 있었다. 즉 계부모 가족일 경우, 가정화목도가 낮을수록, 친구집단의 비행성향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역기능적으로 할수록 자살기도 경험률이 높았다. 자살기도는 패싸움·폭행이나 성경험과는 달리 가족형태, 가정화목도,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같은 가정환경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상에서 친구집단의 비행성향은 네 가지 문제행동 경험유무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경로 분석에서와 같이 중요한 변인이었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실업계 여고생들의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밝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여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여고생들이 지각한父와의 의사소통은 평균 59점, 母와의 의사소통은 평균 66점으로 ( $t=-10.88$   $p<.0001$ ) 실업계 여고생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둘째, 실업계 여고생의 문제행동을 유형별로 보면 가벼운 문제행동 경험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정도 문제행동 경험자, 심각한 문제행동 경험자 순이었고, 경험정도별로 보면 일시적 경험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간 정도의 경험자, 상습적 경험자 순이었다. 그러나 욕설, 휴용업소 출입, 흡연, 무단조퇴·결석, 패싸움·폭행 및 성경험은 일시적으로 경험한 학생보다 중간 정도나 상습적 정도로 경험한 학생이 더 많았다.

세째, 실업계 여고생들은 가정이 화목할수록 학교생활이 성공적일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하였고 계부모 가족형태일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역기능적으로 하였으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 일수록 친구집단의 비행성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이 성공적이지 못할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하였다. 즉 가정환경요인인 가정화목도와 가족형태(계부모 가족)는 의사소통을 매개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었고, 학교환경요인인 친구집단의 비행성향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학교환경요인 중 학교에서의 성공감은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과 의사소통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을 함께 미쳤다.

네째, 가출 경험률은 가정이 화목하지 못할수록, 친구집단의 비행성향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패싸움·폭행 경험률은 학교생활이 성공적이지 못할수록, 친구집단의 비행성향이 높을수록 높았다. 성경험률은 친구집단의 비행성향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자살기도경험률은 가정이 화목하지 못할수록, 계부모 가족일 경우, 친구집단의 비행성향이 높을수록, 부모와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할수록 높았다. 즉 가출에는 가정환경요인과 학교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패싸움·폭행에는 학교환경요인이, 자살기도에는 가정환경요인이 주로 영향을 주었다.

위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문제행동은 일시적으로 경험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상습적으로 경험한 학생들은 적었다. 그러나 욕설, 흡연 및 성경험은 일시적 경험자보다 상습적 경험자가 더 많았다. 호기심으로 한

두 번 시작한 문제행동이 상습적으로까지 진전되기 쉬우므로 조기발견 및 예방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심각한 문제행동 중 자살기도는 의외로 많은 학생이 경험하였는데, 자살기도는 가정화목도, 계부모 가족,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같은 가정환경요인의 영향을 주로 받으므로 지지적인 가정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청소년 상담활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가출, 패싸움·폭행, 성경험 및 자살기도의 경험유무에도 많은 영향을 준 변인은 친구집단의 비행성향이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도록 부모와 교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학교에서의 성공감은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과 의사소통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을 함께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학교에서의 성공감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학교에서 성공적인 학생일수록 부모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문제행동을 적게 하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임시위주, 지식중심의 획일화된 교육풍토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학교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가정화목도와 계부모 가족은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가정에 불화가 잦고 가족간의 갈등이 많은 가정일수록, 정상가족에 비해 결손가족일 경우, 부모와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높다는 선행연구(김규훈, 1988; 김화식, 1985; 최선남, 1990; 김인자, 1991)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형태 중 계부모 가족만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친부모 가족과 편부모 가족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편부모 가족은 세대간의 동맹을 형성하고 가족결속을 강화하여 청소년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계부모 가족은 의붓자녀와 계부모간의 가족지위에 따른 혼란으로 갈등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소년

기 자녀는 부모의 이혼보다 재혼을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므로 청소년 자녀가 있는 계부모 가족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되지 않아 자녀의 문제행동을 야기시키기도 한다(Lamanna, 1991; 최연실, 1995). 그러므로 계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와 적응과정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이상에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학교생활에 성공적이지 못한 학생들은 자신의 고민이나 문제를 부모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지 못하여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학생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익혀가며 기존 사회질서에 반항하는 문제행동 집단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함께 노력하여야 하며, 의사소통 교육 및 부모-자녀 관계 증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만을 고려하고 부모의 지각을 고려하지 않았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으며, 학교에서의 성공감 척도가 두 방향으로 구성되어 신뢰도가 낮으므로 후속연구에서 이 척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하지만, 여학생들에게 적합한 문제행동 척도를 고안하였고,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인과적 모형으로 설명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였으며, 청소년의 가출, 패싸움·폭행, 성경험 및 자살기도 경험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다른 변인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태에서 영향력을 살펴본데 의의가 있다.

## ■ 참고문헌

- 1) 김경화,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9.
- 2) 김순옥, 10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사소통행위 분석-부모교육과 관련하여, 대한가정학회지 33(6), 1995.
- 3) 김윤희, 부부관계·부모-자녀 의사소통·가족

- 기능과 청소년 자녀 비행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4) 김인경.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가족유형 및 가족 의사소통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발달) 6(2). 1993.
  - 5) 김인자. 가정환경에 따른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연구: 인천시내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1991.
  - 6) 김주분. 어머니-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4.
  - 7) 김준호. 한국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원인. 형사정책연구 5(1).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논문집. 1994.
  - 8) 문화체육부. 청소년 백서. 1995.
  - 9) 민하영.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1.
  - 10) 백경임 · 서동인.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친구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5. 1993.
  - 11) 부산직할시. 청소년의식조사 연구. 1994.
  - 12) 안창규 · 문선화 · 전윤식. 가출청소년과 학교 관리 체제. 김문당. 1995.
  - 13) 유혜경.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86.
  - 14) 이 금 · 박옥임 · 이경주.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12(2). 1994.
  - 15) 정명희.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성심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8.
  - 16) 조은경. 부모 자녀간의 대인거리, 심리적거리,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1992.
  - 17) 청소년 대화의 광장. 청소년 자살행동 연구. 청소년 상담문제 연구보고서. 1993.
  - 18) 최규련. 가족학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문제와 대책. 대한가정학회지 34(1). 1996.
  - 19) 최선남 · 최외선. 가족환경변인 및 아동기 부모-자녀 결합형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3). 1995.
  - 20) 최연실 외 옮김. 웨슬리 버어 외 지음. 새로 보는 가족관계학. 서울: 하우. 1995.
  - 21) Aldous, J. Family Careers, Rethinking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1996.
  - 22) Barnes, H & Olson, D.H. Parent - Adolescent Communication in Olson, D.H., McCubbin, H.L., Bar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M.N : Univ. of Minnesota, 1982.
  - 23) Barnes, H & Olson, D.H.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2). 1985.
  - 24) Kinnaird, K.L., & Gerrard, M. Family Atmosphere Questionnaire. 1986.
  - 25) Kinnaird, K. L., & Gerrard, M. Premarital sexual behavior and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divorce among young women as a function of their mother's marital statu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Mar Fam, 48, p. 757 ~ 765.
  - 26) Lamanna, M.A. & Riedmann, A. Marriages and Families.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Belmont, California. 1991.
  - 27) Noller, P.& Fitzpatrick, M. A. Communication in Family Relationships. New Jersey: Prentice - Hall, 1993.